

“토양검정 무료로 받으세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밀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보성군은 관내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2,085점의 토양을 분석하여 제공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대상 농지 4-5곳에서 500g정도 토양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

실(1층)에 제출하면 2주내에 토양 시비처방서를 받아볼 수 있다. 보성군의 2019년도 검정계획은 3,600점(친환경농산물인증 및 GAP인 증 1,700점, 농업인 의뢰분 600점, 정 책지원 및 자체검정 1,300점)이다. 토양검정은 작물이 자라는데 영향

을 주는 토양의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함량 등을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작물에 적합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파악하여 작물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 퇴비, 석회 사용량을 알려줌으로써 토양에 부족한 양분을 경제적으로 시비할 수 있고, 건강한 토양환경 조성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돕는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저비용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검정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무료 토양검정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고소득 친환경 농업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토양검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개관



미래지향적 여성정책 추진

고흥군은 26일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앞 광장에서 군수, 국회의원, 기관사회단체, 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개관

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흥군전속예술단의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식전공연으로 문을 열고 기념사, 축사, 축가, 퍼포먼스,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별관에 희망나눔가게를 열어 옷, 신발, 장난감 등 다양한 재활용 물품을 상호 교환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열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고흥군여성지원센터는 건축면적 998㎡의 3층건물로 취창업 상담실습실, 공동육아나눔터, 조순이 함께하는

놀이방,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다목적실, 희망나눔가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여성군민들의 욕구에 발맞춰 지원하는 종합센터 기능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송귀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군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써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키우는 일이 우리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 말하고, “앞으로 여성지원센터가 우리군 여성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열며, 함께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여수시, 공유토지 분할 실적 ‘전남 최고’

여수시 공유토지 분할 실적이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7월 현재 189건 406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와 단독 등기를 마쳤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3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동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나 시청 민원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역과(☎ 659-3327) 또는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행사와 이용이 자유로워지길 바란다”며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구례군, 신규농업인 영농 정착 기술교육 버섯반 수료

구례군은 26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영농정착 기술교육 버섯반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서는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5월 31일부터 7월 26일까지 9회에 걸쳐 총 36시간 실시하고 60%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21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5월 31일부터 7월 26일까지 9회에 걸쳐 총 36시간 실시되었다.

특히, 신규농업인의 교육수요가 많은 표고버섯 과정을 운영하여 원목표고와 톱밥 표고재배기술 이론과 배지 만들기 실습을 병행, 신규농업인에게 유용한 기술정보 제공과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귀농귀촌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본격적 추진

광양시는 지난 23일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 선정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과 2018년 선정된 광영동,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84만㎡에 원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번에 변경된 활성화 계획은 12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극대화하고 일부 분산되거나 타 사업과 중복된 사업은 조정해 전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걸쳤으며, 5월31일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득하고 이번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았다.

광영동과 태인동 시 도시재생추

진단 및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지역주민들과 각각 22회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를 거친 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광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3개 분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태인동은 4개 분야,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을 활성화 계획(안)에 담았으며, 5.31.(금)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고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편,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역량강화를 진행 중이며, 한옥가꾸기 건축설계용역, 한옥기반구축용역, 골목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문화플랫폼 및 문화창고 건축설계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오는 9월부터 한옥 가꾸기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마을공동체 비전 수립 토론회’ 개최

순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마운 마을 사업 참여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비전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순천시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에 담아 낼 공동체 비전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수립 토론회에 앞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정보영단장은 특강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개인의 삶과 지역, 더 나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순천시, 그 변

화의 중심에 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공동체 활동의 경험을 꺼내놓는 시간을 가지며 순천시 공동체 비전에 담을 핵심키워드를 선정했다.

순천시 마을 공동체에 담은 핵심 키워드로는 ‘행복, 따뜻한, 정, 참여, 이웃, 발전, 생각, 변화, 관계, 재미, 소통, 마을’ 등을 꼽았다.

순천시는 이날 나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순천시 마을공동체 비전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곡성군, 미래농업 이끌 리더 양성 워크숍 성료

곡성군은 최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농촌사랑학교에서 곡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40명을 대상으로 ‘곡성군 농업 리더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곡성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윤선 마케팅연구소 윤선 박사를 초청해 개성 있고 차별화된 마케팅 방법 등 미래농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리더로서의 자기관리 역량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파워대화법 등 소통의 리더십 개발, 완주군 경전 애인관역 운영 우수사례 등을 청취하며 곡성군의 농업 미래상을 그려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촌지도자 곡성군연합회 정종기 회장은 “곡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인학습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워크숍뿐 아니라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의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건기간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